

# 젊은이여 일어나라!



슬퍼서 울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어머니는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마을 근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눕힌 관을 메고 마을 밖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죽어서 마을 밖 공동묘지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어머니와 이웃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청

### 기억 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16)

### 중심생각

슬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년의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마저 죽고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을 붙잡고 “젊은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놀랍게도 죽었던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서적

누가복음 7:11-17,  
시대의 소망 318-320

기억절 외우기

기억절을 세 번 읽고 따라 써보세요.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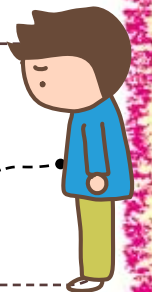
말하기

가장 슬프고 속상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언제 :

어떤 일 :



말하기

예수님이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 벌어지고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말하기

불쌍한 여인이 되어보세요.  
아들을 살려신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중 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방문해보세요.  
(그림, 전화, 노래, 꽃등)